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5. 11 + 12 vol. 136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울면 안돼”를 부르던 시절은 지났지만
또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면 알록달록한 포장의 선물을 기다리던 그때의 기분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받았던, 혹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던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그 속에 담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올 겨울에도 매서운 추위를,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어갑니다. 모두 무탈하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이지만 늘 새로운 기분으로,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오는 해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는 연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 공기에 입김이 절로 나오는 계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경써서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번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연간 스페셜 테마에서는 특히 겨울에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인 ‘급성기 뇌졸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뇌졸중은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신체의 이상 증상을 통해 그 징후를 알아챌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뇌졸중이 찾아오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늘 앞장서 준비하고 연구하며 힘써 나갈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사한 분들의 얼굴입니다. 바로 올 한 해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믿고 아껴주시며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언제나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김 경 현



VOL.136 | 2015 | 11+12

한양대학교의료원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⑤ 급성기 뇌졸중

전체 사망 원인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은 특히 겨울철,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심할 경우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되더라도 신체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더 무서운 질환인 급성기 뇌졸중은 증상이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1+12월호 ‘수술 잘 하는 병원’ 다섯 번째 시리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즐거운 편지 |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이정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 교수

08 Love, Life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5 구리코스모스축제 의료 봉사 현장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⑤ 급성기 뇌졸중

12 뇌졸중 판단, 신호는 갑작스런 이상 증상 | ① 신경과

14 신속한 치료, 목표는 뇌 손상의 최소화 | ② 신경외과

16 빠른 일상의 복귀, 방법은 재활치료의 병행 | ③ 재활의학과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 최지우의 췌장암

24 베스트 파트너 | 미래신경과

26 Dr. Opera | 크리스토프 글루크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28 Dr. Movie | 그녀는 왜 그를 죽여야 했나?

30 예술과 의학의 만남 | 빈센트 반 고흐 & 편두통

32 고마운 당신에게 | 흉부외과 정원상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4 Hanyang News |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한양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5년 11월 1일 통권 136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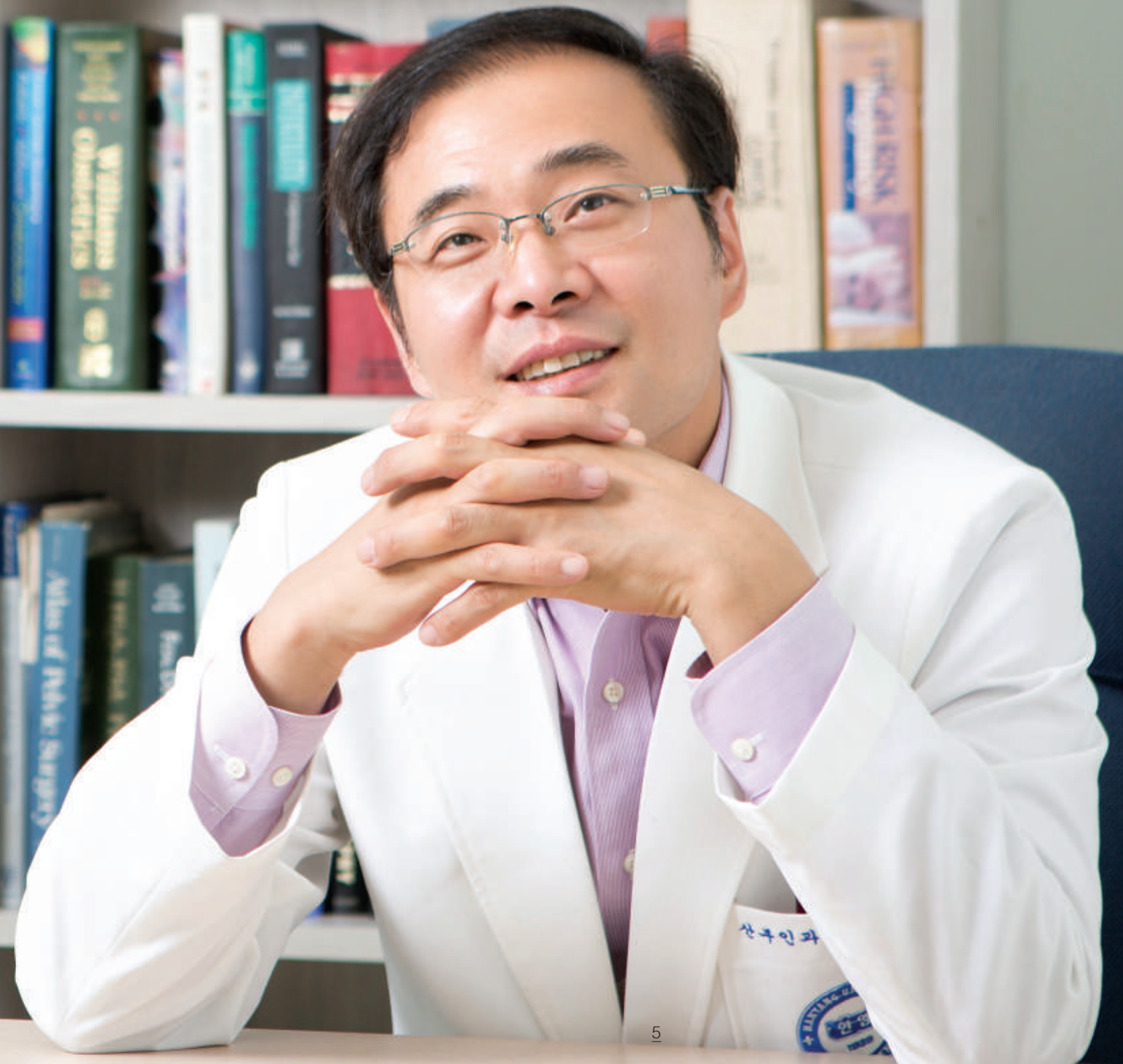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532

산부인과를 향하다, 사람을 생각한다

이정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 교수

2015년 11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분만중'이라는 녹색 불이 들어왔다. 이 불이 다시 켜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정한 교수는 더 이상 분만실의 불이 꺼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개인의 성취나 의사로서의 생활을 묻는 일에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그는 지역사회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 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르러서야 두 눈을 반짝 빛냈다.

글, 박여민 사진, 김상민



부자(父子)가 이어온 '산부인과는 내 운명'

“저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우리 산부인과가 아니고요? 아이쿠, 그냥 우리 산부인과만 소개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나저나 면도라도 좀 하고 올걸.”

살짝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 넥타이를 생략한 셔츠 차림의 이정한 교수가 인사와 함께 건넨 첫 마디다. 꾸미지 않은 자신의 모습보다도 그가 속한 산부인과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데서 직업정신과는 또 다른, 산부인과를 향한 그의 애정이 묻어났다. 한 손으로 머리를 쓱쓱 쓸어 넘기곤 촬영 준비가 다 됐다더니, 다른 것보다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다시 분만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진 속에서도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머리 속엔 온통 산부인과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듯한 이정한 교수, 어쩌면 그와 산부인과의 인연은 시작부터 남달랐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한양대학교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교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만나러 산부인과를 놀러 가듯 방문하곤 했다. 급하게 돌아가는 분만실 복도의 분주함, 간난 아이의 울음소리, 새 식구를 맞이한 가족들의 환희에 찬 웃음 등이 그에게 마치 일상처럼 익숙한 풍경이었다.

“사실 다른 길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의대에 진학하고, 산부인과를 전공으로 결정했죠. 게다가 아버지의 모교인 한양대학교로 가게 된 건데, 주변의 교수님이나 스텝 분들 모두 저를 보면 당연하다는 듯 “너는 산부인과야”라고 말씀하셨죠.”

“지역 산부인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비할 수 있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재직한 지 어느새 13년. 이정한 교수에게 산모와 아기들은 늘 조심스러운 존재다.

어려서부터 익숙한 풍경이었고, 당연한 내 길인 것 같았지만 막상 산부인과 의사를 향해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더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을까,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소리없이 슬럼프가 찾아왔다. 전공의 1년차 때였다.

출근시간이 다 지나서도 집에서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다른 말 없이 “그만두고 싶다면 가서 사표를 쓰고 제대로 끝내라”고 했다. 결국 이 교수는 사표를 내기 위해 출근을 했고, 분만이 있으니 할말이 있으면 잠시 기다리라던 주임교수는 이 내 분만실로 그를 불러들였다.

“아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 봤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주임교수님께서 다 지도해주셨던 거지만, 제 손으로 받아본 첫 번째 아기였으니까요. 뭐랄까, 늘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뭔가 희열이랄까, 미묘한 느낌이 드는 것이 참 아직도 그때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분만실을 나온 뒤 주임교수님이 할 말이 뭐였냐고 물으시는데, 사표고 뭐고 이미 머리 속에서 다 사라지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고위험 산모 위한 산부인과를 목표로

산부인과 중에서도 이정한 교수의 전공은 비뇨부인과 질환 분야다. 나이듦에 따라 약해지는 골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요실금이나 자궁탈출증 같은 골반저 관련 질환이 중심이 된다. 2009년에는 이 분야의 공부를 위해 미국의 스탠포드로 1년 반 동안 연수를 다녀오기

도 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전공이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11월부터 다시 운영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의 분만실 소식이라며 이 교수는 금세 화제를 돌렸다.

“산부인과 분만실이 새롭게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게 됐어요. 요즘 초산 임신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산모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찾아오곤 하죠.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구리·남양주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우리 병원 산부인과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특히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인근 지역의 하나뿐인 대학병원이자 유일하게 미국아를 위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리고 이제 재정비를 마친 산부인과가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차례다. “무엇보다도 지역 산부인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인근 지역 고위험 산모를 위한 시설이 될 겁니다. 전 스텝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들은 모두 조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요.”

현재 이정한 교수의 머리 속은 산부인과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생각으로 꽉 차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모습은 젊은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지치지 않기 위해, 더 오래 멀리 가기 위해 때로는 호흡의 완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럴 때면 늘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쉽표를 찾는다고 한다.

“책은 정말 많이 읽어요. 장르를 가리지는 않는 편인데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이 담긴 이야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책을 통해 인생을 공부하는 거죠. 저마다 다른 인생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엔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여요. 그 작은 생명들도,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각자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겠죠?” 새삼스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그렇게 문득 찾아온다. 하나의 인생, 어떤 삶의 시작을 받아내는 일이라니, 그런 마음이 들때면 의사로서의 사명감까지 되살아나곤 한다.

어려움 끝에 찾아오는 가장 큰 기쁨, 출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에서 재직한 지 벌써 13년. 그 사이 수많은 산모를 만나고, 셀 수 없이 많은 아기를 받으며 이제는 나름 노련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정한 교수에게 산모는 무서운 존재다.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맞겠죠. 진통이 시작되면 산모마다 다르지만 보통이 열 시간이에요. 산모들은 그 시간 동안 진통을 견디



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 시간 기다린다고 바로 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를 넘기기도 하죠. 그래도 기다려야 해요. 늘 기다리고, 함께 곁에 있으면서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어쩌면 쉽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여정의 어려움과 또 그 기다림의 위대함을 너무 잘 알아서 일까, 아무리 경험해도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은 늘 경이롭고 소중하기만 하다.

하지만 정작 이정한 교수 본인의 아이는 직접 받지 못했다. 많이 긴장할 것 같았는지 동료에게 맡긴 채 자신은 어게 너머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녀 이야기에 다시 한 번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에게 요즘 늦둥이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 자신의 행복은 두 말할 것 없이 자녀들이라며 이정한 교수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 덧붙였다.

“언제든 안심하고 찾아오세요. 제가 그리고 우리 산부인과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걱정 없도록, 잘 지켜보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5 구리코스모스축제 의료 봉사 현장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 '2015 구리코스모스축제'의 둘째 날인 10월 10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은 무료 진료소 준비로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2010년부터 대규모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올해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의료 봉사에 나섰다. 250여 명의 임직원들이 내뿜는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글. 황원희 사진. 박승주



건강한 축제의 시작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제15회 구리코스모스축제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드넓게 펼쳐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공원은 생기가 넘쳤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코스모스를 따라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장에 들어서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의료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힘든 기색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에 떨어진 기온이 이곳의 열기로 조금씩 사그라진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5년 전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참여하는 대규모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건강체험 한마당 내 12개의 부스는 각 진료과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을 위한 건강 검진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무료 진료소 체험 부스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에 집중한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가요.' 매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약사, 의사, 간호사 체험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토피 & 알레르기 바로 알기와 성장교실 부스는 어린아이들의 단골 체험 코스가 될 예정이다. 두 번째 테마는 '노후를 건강하게'로 골다공증 검사, 뇌 혈류 검사,

당뇨병 클리닉 등 어르신들을 위한 부스로 꾸며져 있다. 마지막은 구강위생교육, 걸음걸이 분석 및 교정 그리고 심폐소생술 체험을 포함한 '소중한 몸, 내 스스로'이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모든 임직원들이 중앙무대로 모였다. 떨어진 기온 탓에 얼어붙은 몸을 체조로 풀고 다 함께 "한양, 한양,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진다.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매년 의료 봉사를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시민들을 위한 진료를 잘 부탁한다"고 전했다.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 지킴이

오전 10시가 되자 건강체험 한마당 중앙무대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HY 밴드는 가을과 꼭 어울리는 노래 선곡으로 가을 축제의 흥을 돋우며 의료진은 물론 무료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했다. 여러 부스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약제팀과 간호국의 직업 체험 부스였다. 약제팀의 약사 체험은 어린이들이 약사가 되어 초콜릿으로 된 알약을 조제하고 포장해보는 체험이었다. 작은 손가락을 움직여 진지하게 약을 담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간호국은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귀여운 캐릭터 의상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을 교육했다. 부스 안쪽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로 분한 아이들이 직접 아기 인형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체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신설된 소아청소년과 부스도 아토피 교육과 알레르기 검사를 받기 위한 아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소아청소년과 조상연 전공의는 피부반응을 통한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팔뚝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8개를 그렸다. 자랑스럽게 팔을 내미는 11살 민서와 9살 민준이는 이번 검사를 통해 각각 참나무와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발견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하니가 정말 재미있어요. 알레르기 검사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신기했어요. 조금 있다가는 의사랑 간호사 체험도 하러 갈 거예요.”

병원이었다면 조금은 무서웠을 검사를 웃으며 받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시간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무료 진료소는 유익한 장소가 된다. ‘당뇨병 클리닉’ 부스는 인바디를 통해 비만도를 확인하고 혈당 측정 후 영양 상담까지 진행했다.

“혈당을 측정한 후 당뇨 위험군인지 확인해요. 인바디로는 비만도를 체크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진료 파트로 내용을 전달해 영양 교육과 당뇨 상담을 이어가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병을 발견하기

도 하고 미처 몰랐던 건강관리법을 배워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이게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당뇨센터 이정인 간호사는 많은 시민들의 방문에도 밝게 웃으며 건강 지킴이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은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무료 진료소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걷히고 잠시 햇살이 비쳤다. 조금 따듯해진 날씨 덕분에 오전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신경외과와 신경과 부스는 MMSE 치매선별검사와 뇌 혈류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어르신들로 가득했고,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가 함께 준비한 ‘만성통증 생생정보통’ 부스 역시 골절 위험도와 걸음걸이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줄이 길게 이어졌다.

정형외과에서 운영하는 ‘골절 없는 세상’ 부스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참여한 50대 여성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온 58세 김순국 씨는 “코스모스축제에 왔다가 우연히 무료 진료소에 들렀어요. 50세 이상 여성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와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관절을 건강하게 관리해야겠어요”라며 무료 진료소



덕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응급의학과 부스는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최혁중 교수는 “성인과 어린이의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체험을 준비했어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가슴 압박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린이들도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보여서 다행이네요”라며 설명과 시범을 이어갔다.

약 3천 명의 시민들이 찾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무료 진료소는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최신 PET-CT 무료 검진권, 간 초음파 무료 검진권, 자전거 등 풍성한 경품 행사를 마련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약 100만 원 상당의 PET-CT 검진권에 당첨된 홍진화 씨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많은 건강 정보를 배워가요. 검진권까지 당첨되다니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 건강 검진을 위해 사용하려고요”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리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굳은 다짐이다.☺

Mini Interview



이창민&김혜은 씨 가족

“연휴를 맞아 구리코스모스축제에 왔다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무료 진료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의사 체험이랑 간호사 체험이 재미있었나 봐요. 첫째 준엽이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래요. 심폐소생술도 배웠는데 나중에 아빠가 위험에 빠지면 직접 구해주겠다고 하네요. 모든 부스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요.”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매년 연휴를 반납하고 의료 봉사에 동참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아갑니다. 지역 주민과 항상 함께 한다는 대학병원의 이념을 기초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올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뇌졸중 판단, 신호는 갑작스런 이상 증상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들을 통칭한다. 뇌졸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뇌혈관의 이상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뇌경색과 뇌출혈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졸중은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 받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글. 김현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졸중의 증상

뇌졸중은 급속하게 발생한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의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 원인에 따라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뇌의 혈관이 막혀 뇌세포로의 혈액과 산소 및 영양분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후자는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한 출혈로 인하여 뇌가 압박 또는 손상 받아 발생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시리다, 뒷골이 빠근하다, 얼굴이 실룩거린다, 손이 떨린다' 같은 상태가 뇌졸중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진과 정밀검사를 해보면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뇌졸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실상 뇌졸중은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 받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몸의 한 쪽이 움직이지 않고 힘이 빠지는 것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다. 예를 들어 같은 쪽 얼굴-팔-다리의 힘이 빠진다면 수저나 컵을 쥐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된다. 심할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거나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발음이 이상하고 말이 샌다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역시 뇌졸중의 증상이다.

시야장애나 복시(이중시)가 나타나기도 한다. 양측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왼쪽 중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지는 것, 일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위가 뻥뻥 도는 느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증상, 그리고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뇌졸중이나 소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극심한 두통이 생

겼거나 구토, 의식장애가 있다면 급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빠른 검진과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마비보다는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며 구토와 의식장애가 흔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다.

손각을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의 치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편 팔,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이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혹여 평생 서서 걷지 못할까 염려하게 된다.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모든 뇌졸중 환자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발생한 뇌졸중의 치료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간 싸움으로, 급성기 뇌졸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큰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혈전용해제와 혈관성형술/혈전제거술을 사용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재개통 시켜주어야 뇌손상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도 혈전용해제와 혈관성형술/혈전제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뇌경색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혈전용해제 사용을 위한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까지, 혈관성형술/혈전제거술 시행을 위한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6시간까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전은 딱딱해져서 제거하기 어려워지며, 뇌도 이미 많이 손상되어 뇌혈관이 다시 뚫려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급성기 뇌졸중 증상을 숙지하여 뇌졸중이 의심되면 곧바로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하자.📞

신속한 치료, 목표는 뇌 손상의 최소화



2013년도 사망통계를 근거로 할 때 우리나라의 원인 별 사망률 중에서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9.6%로 악성신생물, 즉 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겨울철, 특히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심할 경우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되더라도 한쪽의 마비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원인 파악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혈전성 뇌경색과 심장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색전성 뇌경색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에 반해 뇌출혈은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 오랜 고혈압에 의해 뇌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발생하는 고혈압성 뇌출혈과 혈관 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풍선이나 찢리처럼 부풀어 약해져 있다가 터져서 발생하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 그 외에 뇌동정맥 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혈관의 기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뇌졸중의 원인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도 차이가 나게 된다.

뇌경색, 무엇보다도 시간이 관건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급성기 뇌경색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뇌혈류를 개선시켜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병변의 악화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막혔던 뇌혈류를 재관류시키는 것이다. 뇌혈관이 막히더라도 신경세포가 완전히 손상된 부위의 주변 조직 변화는 발병 6~8시간 이내에 다시 혈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바로 이 부분이 치료의 목표인 셈이다.

막힌 뇌혈관을 뚫고 혈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 내 또는 동맥 내로 투여하는 치료가 있다. 이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뇌혈관내수술방법’으로 막혔던 뇌동맥에 접근, 혈전용해제를 직접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며, 이때 기구를 이용하여 막힌 혈관 속 혈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

법도 함께 시행된다.

이러한 치료법은 발병으로부터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내에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급성기의 뇌경색 치료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첫 번째 숙제인 셈이다. 이와 같은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두개내외 혈관문합술을 이용하여 막힌 뇌혈류를 재관류시키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뇌경색 진행에 따른 뇌부종이 악화되어 뇌의 전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의 두개골을 절제하는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을 절개하여 감압시키는 경막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뇌경색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차선택일 수밖에 없다.

뇌출혈, 출혈 양과 원인 먼저 확인

급성기 뇌출혈은 환자의 상태 및 출혈 양, 출혈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 출혈 양이 적고, 환자의 의식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혈압 조절 및 뇌압을 낮추주는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출혈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응급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뇌수술자동화방법 장치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술 시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의 위치 및 모양에 따라 동맥류 결찰술 혹은 혈관 내 수술을 통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는 병변이 제거된 후에도 뇌부종과 혈류의 저하에 따른 이차적 뇌손상이 더욱 무서운 적(敵)이다. 이차적 뇌손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자신의 체력적인 면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또한 환자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역시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④

글. 정진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빠른 일상의 복귀, 방법은 재활치료의 병행



뇌졸중 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뇌졸중 생존자의 85%는 개인 차이는 있지만 기능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이때 기능장애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인 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뇌졸중 자체 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좋다.

급성기 뇌졸중의 재활치료

급성기의 재활은 적절한 체위유지, 체위변경, 피부관리, 수동적 관절 가동운동, 삼킴 기능의 평가와 치료, 유치도뇨관의 적절한 제거 및 배뇨·배변훈련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관절구축, 욕창,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상의 기능회복을 얻을 수 있다. 뇌졸중 환자가 적절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운동능력과 사회화, 일상생활훈련 등을 위한 재활치료 전략을 세워 환자의 외적, 내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성기 뇌졸중에서 중요한 재활치료는 크게 세가지로, 환자의 가동 문제와 관련되어 초기에 시작하는 재활관리, 삼킴 장애와 관련된 영양 문제,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

초기 관리가 중요한 가동(Mobilization) 문제

뇌졸중 발생 후 의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되도록 일찍 거동하며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찍 거동하는 것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증(Immobilization)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욕창, 자율신경계이상, 폐렴, 관절구축, 근육감소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은 뇌졸중 발생 후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이나 아스피린 등의 약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활운동 계획에 따라 초기에 가동범위 운동과 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있는 뇌졸중 환자의 10%에서 생기는 욕창은 대개 피부 말초 혈관의 손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즉 당뇨와 말초 동맥 폐색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요실금증, 마른 노약자 환자 등에서 위험성이 높다. 매일 피부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자주 체위를 변경해주며, 올바른 침상자세를 유지하여 마찰력과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은 초기에는 50%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뇌졸중이 회복되어가는 만성기에는 20% 정도의 유병률을 가진다. 요실금이 있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에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

는 것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피부손상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가동 문제는 특히 근육감소가 빠른 노약자환자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지하나 운동영역의 손상으로 혼자 자의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구축을 막아주는 보조기를 이용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는 대개 치료사에 의해 도움을 받는 수동운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능동운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뇌졸중 환자 50%가 겪는 '삼킴 및 영양 문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50%는 삼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급성기에 기도로 무증상 흡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학적 삼킴 검사 전까지는 음식을 입으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학적 검사에서 삼킴 장애가 의심되면, 비디오투시 삼킴 검사(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VFSS 검사결과 삼킴 장애에 의한 흡인상태가 확인되면 경관삽입을 실시하고 삼킴 재활치료를 받는다.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졸중의 회복 결과도 좋지 않으므로 경구식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기부터 지속적인 영양과 전해질수치, 수분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절한 의식 명료화 후 진행되는 '인지와 의사소통 문제'

약 30%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는 전반적인 의식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급성기 재활치료에서 인지기능이나 의사소통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의식이 적절하게 명료해지면 재활치료 계획을 위해 인지와 언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뇌졸중 생존자의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초기에 이것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활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수면장애 역시 뇌졸중 후에 흔히 발생하는데 수면부족은 기억능력과 감각운동능력 회복에 영향을 미치므로 급성기부터 관리해야 한다.🔗

글. 김태곤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당신의 다이어트, 이제 우리와 '끝까지 간다'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고지혈증...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성인병이자 주요 원인으로 '비만'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건강의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이기도 한 비만.

이제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글. 박여민 사진. 정준택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는 비만의 원인을 분석한 뒤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모든 방법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살, 찌기는 쉬워도 빠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성인 1/3이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늘날 비만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비만 외모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비만의 원인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을 비롯한 유전, 환경, 문화, 사회, 경제 및 개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 상담, 교육,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포괄적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오래 전부터 비만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에 대해 고민해왔다. 대부분의 성인병뿐만 아니라 사망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병 중 상당수의 원인을 비만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는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피할 수 없는 ‘다이어트’.

하지만 살은 찌기는 쉬워도, 빠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몸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한양대학교병원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비만도 이제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모든 진료과와 협진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비만 클리닉이 시술이나 약물치료 등 한가지 방법으로 비만을 해결하려 했다면,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는 비만의 원인을 분석한 뒤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모든 방법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비만 관리는 비만 전문 주치의의 맞춤형 상담과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피검사와 심전도, 엑스레이, 소변검사, 체성분 분석 등의 결과가 나오면 가정의학과와 소화기내과, 소아과 등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과의 교수들이 모여 환자만을 위한 맞춤형 관리법을 논의한다.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 본인의 노력과 생활 개선을 통해 충분한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센터에 준비된 관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몸 만들기에 들어간다. 환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을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식단 관리나 운동, 행동 관찰 등 생활의 목표가 주어지며, 규칙적인 내원을 통해 맞춤 피드백을 들 수 있다. 매 방문 때마다 의사 상담, 영양 상담, 체 성분 분석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요법이 함께 진행된다.

의료적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과나 성형외과 교

수들의 협진이 시작된다. 앞서 진행된 검진 결과를 토대로 시술 혹은 수술을 받기 가장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는데,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의 습관 관리를 통해 수술적 치료 후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요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수술이 끝나도 관리는 계속된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입원 관찰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인 비만센터 내원으로 상담 및 이후 관리를 이어간다.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방문은 더욱 추천된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의 치료가 모두 체중 감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의 다학제적인 접근이 환자의 질병까지 한번에 관리해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에서는 비만 관리가 필요한 관절염 환자들이 각 과의 추천을 통해 비만치료센터를 방문,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당신의 성공적인 다이어트 파트너

오늘날 현대인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비만,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 하지만 막상 TV 속 몇몇 연예인의 사례 등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체중 조절 및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자와 의사 간의 긴밀한 관계다.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모두 담당의와 1:1의 관계로 연결된다. 지방흡입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의 수술 환자는 담당의 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 의와도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 한 번의 센터 방문을 통해 비만 상담을 담당하는 의사,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영양사를 모두 1:1로 만나고, 그들로부터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처방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된다. 본인의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가들의 안내는 덤이다. 때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끔은 강력하게 쓴소리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끈끈한 파트너십이야말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인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센터의 관리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꾸만 실패하는 다이어트, 혹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 치료센터를 방문해보자. 이미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파트너가 되어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 

●문의 : 02-2290-8738

Mini Interview

“치료하는 병원에서
예방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



맞춤형 비만치료센터장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무엇보다도 ‘건강미’를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비만과 다이어트는 최대의 화두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는 1년여간 전 병원 차원에서 여러 과 교수님들과의 논의 끝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만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도 몇 되지 않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살을 빼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의 습관과 체질 등을 고려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맞춤형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도와 보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량 만으로도 혈압을 낮출 수 있으며, 당뇨병의 경우는 약을 확 줄이거나 끊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병원은 질병을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오픈을 계기로,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 스무 살

드라마 <두 번째 스무 살> 최지우의 체장암

밝고 당돌했던 소녀는 어느덧 스무 살 대학생 아들을 둔 '아줌마'가 되었다. 열아홉에 임신해 남편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은 잊고 살았던 여자. 엄마, 아내로 사느라 무용가의 꿈은 고이 접어 추억 속에 묻었던 하노라(최지우)가 대학 캠퍼스에 뒀다. 뒤늦게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잃어버렸던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찾고, 자신의 두 번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반란이 유쾌, 상쾌, 통쾌하다. 글. 전진 사진. tvN



대학은 한번, 인생도 한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민수(김민재)가 대학에 입학하면 남편 김우철(최원영)과 이혼하겠다는 '공중'까지 받은 하노라(최지우). 그녀는 남편과 '수준'을 맞춰 결정을 돌려보기 위해 첩보작전을 펼치듯 공부해 대학 진학에 도전한다. 외롭게 공부해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과 아들의 반대. 절대 안 된다는 엄포에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준 베개 속 돈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새내기가 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전을 시작하려는 그때 알긋게도 '체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상실감과 슬픔에 빠진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연세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죽을 나이에요?" 나이가 많아 대학 등록을 할 건지 확인한다는 전화에 묵혀왔던 화를 쏟아내는 그녀. 죽기 전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해보려겠다

고 결심한다. 죽기에는 억울한 나이, 인생은 한 번뿐. 못해본 게 많은 청춘의 시간이 아깝고 서러웠던 것. 그녀는 가족들 몰래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같은 대학에 함께 입학한 아들과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남편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숨어 다니고, 학교 구석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허기를 달랜다. 그래도 설렌다. 아쉽게 놓친 스무 살을 되찾은 것 같으니까.

19세에 덜컥 애 엄마가 되어 전업주부로만 20년째인 그녀는 대학생활 모든 게 낯설고 어렵다. 수강신청도, 팀플레이로 하는 과제도, 대학생들이 쓰는 은어도. 게다가 학생들은 그녀를 교수로 보거나 '귀찮은 아줌마'로 취급하기 일쑤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로워도 꼭 참는다. 이런 그녀의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힘이 되어주는 유명한 연극과 교수이자 고등학교 동창 차현석(이상윤)이 있기에 쓸쓸하지 않다.

두 번째 사랑, 관찰을까?

현석은 20년 전 갑자기 결혼해 말도 없이 떠났다가, 도깨비처럼 눈앞에 나타난 그녀가 밍지만, 자꾸 신경 쓰이고 아련하다. 아무것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는 그녀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현석은 노라를 몰섬양면 돕는다. 사물함을 내어주기도 하고, 우연히 본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기 위해 뒷일을 꾸미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흑기사처럼 돕기도 하고, 그녀를 무시하는 우철 앞에서 기를 세워주기도 한다.

노라를 첫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현석은 무심한 척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녀를 위하고 살핀다. 시한부 진단은 오해였다는 게 해프닝처럼 밝혀졌지만, 그 때문에 노라는 더 밝아지고 당당해진다.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춤을 추면서 오래전 꿈꾸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수동적이었던 생활을 벗어 던지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한 그녀. 순종적이고 희생만 했던 아내와 엄마에서 두 번째 스무 살을 맞이한 매력 넘치는 '하노라'로 다시 태어난 그녀에게 새로운 로맨스도 찾아왔다. 뒤에서는 대학 이사장 딸인 이진(박효주)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권리를 운운하는 우철에게 "좋아하면 어쩔거냐"라고 소리치는 현석의 마음은 이미 노라에게 가 있다. 마음이 바뀐 남편과의 이혼을 쟁취하고 몸져누운 자신을 간호하다가 잠든 현석을 보고 미소 짓는 그녀의 마음 또한 현석에게 향해 있다.

뒤늦게 20년 전 자신을 좋아했던 현석의 마음을 알게 되고, 스무 살 아이들처럼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는 그녀는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도리질 친다. 하지만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곁에서 지켜보고 위로해준 이와 시작하는 두 번째 사랑은 한 번뿐인 인생의 또 다른 '행복한 선택'이 아닐까?



하노라의 두 번째 스무살을 결심케 한 '체장암'이란?



최동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수시 검진 필요

체장암의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여러 가지 체장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통, 식욕부진, 체중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이 외에도 지방의 불완전한 소화로 인해 기름진 변의 양상을 보이는 지방변 또는 회색변, 식후 통증,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이 있으나,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체장의 체부와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 검진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알 수 없으나, 유전이라면 주의

체장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른 암에 비해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암 전 단계의 병변 역시 뚜렷하지 않다. 체장암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에는 고령, 흡연 경력, 오래된 당뇨병,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만성 체장염 및 일부 유전질환에서 체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장암 환자 중 약 7~10%는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체장암 환자에서 체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절제술 치료로 완치를 기대

체장암의 치료는 암이 있는 곳을 잘라내는 절제술과 병변의 진행으로 근치적인 절제술이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고식적인 수술방법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체장암은 수술적인 절제가 선행되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암이 있는 범위에 따라서는 체장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십이지장 등이 막혀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장을 연결하거나, 황달이 생기지 않도록 담관과 장을 연결하는 고식적인 수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치유를 이끄는 ‘관계’의 힘 미래신경과

신경과는 우리 몸 속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과이다. 신경은 인체의 곳곳에 퍼져 있지만, 또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긴밀한 상호작용을 벌인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경처럼, 의사와 환자, 혹은 병원과 병원 사이에도 서로 간의 연결과 그 연결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막히지 않는 소통의 ‘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미래신경과 고진석 원장을 만났다.

글. 박여민 사진. 강민구

부드럽고 강하게, 환자를 만나다

한 젊은 남자가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미래신경과를 찾았다. 갑자기 손발이 굳고 힘이 빠진다고 했다. 갑작스런 몸의 경직이 알지 못했던 큰 병의 신호일 것이란 짐작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명은 과호흡 증후군. 갑작스런 긴장이나 과다 호흡에 의해 몸 속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져서 나타난 것이었다. 고진석 원장의 치료로 환자의 상태는 곧 호전됐고 표정이 밝아진 이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

“신경과 질환은 대체로 몸이 저리거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히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분들은 정확한 원



미래신경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 문의 : 02-3395-8275

인을 알 수 없으니, 더 큰 질병과 연관 지어 생각하며 공포심을 가지곤 해요. 그런 환자들을 우선 진정시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신경과의 고진석 원장은 예과 첫 수업에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배웠던 “Warm & Strict”야말로 환자를 대하는 원칙이 함축되어 있는 글귀라고 말한다. 큰 병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오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때 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신경과 질환은 대체로 육체의 노화

에 따른 신경의 퇴행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요 환자층은 여전히 부모 또래의 나이든 분들이다. 나이든 분일수록 작은 증상에도 걱정은 더 커지게 마련이니 고 원장의 진료는 늘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주효했던 것은 노인 환자들의 호칭을 ‘어머니, 아버지’로 바꾼 것이었다.

“제 스스로도 환자분들을 부모님처럼 더욱 신경 써 드릴 수 있고, 환자분들도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 생각도 나고 하시는지, 한층 수월하게 병원과 병에 대한 경계를 푸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뤄진 관계의 변화가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졌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함께 만드는 신경과의 ‘연결고리’

고진석 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이다. 왕십리에 미래신경과를 개원한 이후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왕래가 잦았던 한양대학교병원과 자연스레 협력병원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인 선·후배들이 포진하고 있어 언제나 안심하고 환자를 인계할 수 있어요. 인계된 환자의 상태가 궁금할 때도 부담 없이 상황을 묻고 의논하곤 하죠. 꼭 동문이 아니더라도 협력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의 핫라인인 ‘진료협력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아요.”

고 원장은 한양대학교 동문으로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 중이다. 일년에 최소 두 번 이상 진행되는 의국행사와 본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세미나에도 늘 참여한다.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선·후배들과 교류를 나누고, 또 의료계의 동향이나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쌓다 보면 다시 대학시절 꿈 많던 의학도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든다. 이렇게 든든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신경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은 여전히 그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이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의, 동네 병원은 또 그 나름의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요. 지금처럼 한양대학교병원 곁에서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병원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동네 병원만의 장점이 있으니, 내원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실시간 대처 및 맞춤형 처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을 꾸러 나가는 게 아직도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고진석 원장. 그럼에도 그가 늘 웃고 있는 것은 미래신경과를 믿어주는 환자들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큰 꿈을 키워나가는 동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음악의 아름다운 단순성으로 서정적 감정을 노래하다

크리스토프 글루크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Christoph Willibald Gluck Opera <Orfeo de Euridice>

글루크는 오페라의 다양한 요소들을 독창적인 통합 형태로 만들었다. 극장극(Azione Teatrale)은 왕족을 위한 기본전환용 형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극장극이 전통 속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무대화된 주제는 대개 신화에서 따온 것이었으며 음악극(Dramma per Musica)보다도 훨씬 풍부한 표현수단, 즉 변화가 많은 관현악법과 합창곡, 반주가 딸린 긴 레치타티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글루크는 이러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기본적인 양식에다 프랑스의 양식을 가미하고 독일풍의 중후함과 함께 그만의 독창적인 오페라를 완성하게 된다.

독일 에라스바흐에서 산림감시관의 아들로 태어난 글루크는 1754년 빈의 부르크 극장에서 음악감독을 했다. 그동안 오페라 세리아를 주로 작곡하였던 그에게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칼차비지와와 만남은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그는 오페라 개혁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서 칼차비지와 합작으로 비엔나에서 1762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1767년 <알체스테>를 제작한다. 당시 바로크 시대 오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극의 내용이나 음악보다 가수들의 기교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글루크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망쳐왔던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아름다운 단순성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페라는 시를 따라야 하며, 필요 없는 음악적인 꾸밈을 뺄 수 있는 대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글루크의 오페라에 대한 지론이었다. 그는 아리아 가수의 기교를 과시하려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제거하고, 서곡을 극의 내용에 맞게 만들었으며 관현악을 극적 요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원래 빈에서 연주를 위해 쓰여 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1774년 파리의 무대에 올리기 위해 개작되었다. 주인공인 카운테테너를 위해 악보를 다시 썼고, 오케스트라 부분도 변경하면서 발레가 추가되었다. 이 오페라에서는 짧은 아리아가 모습을 감추고, 선율이 분명한 장대한 스타일의 아리아에 더욱 독자성을 주었다. 이러한 아리아는 그때까지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정적 감정의 호소를 시도하고 있었다.



서곡 Allegro molto 전체적인 분위기의 암시가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슬픈 정경을 연상케 하며, 정열적이면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제1막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체의 무덤 아내의 무덤 옆에 오르페오가 홀연히 서 있다. 젊은 양치는 목동들이 그 무덤을 장식한 꽃을 향해 애도의 합창을 한다. 모두 사라진 뒤 혼자 남은 오르페오는 그의 아내가 자기의 품안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의 신에게 기도하며 비통한 어조로 아리아를 부른다. 그 기도에 감동한 사랑의 신이 나타나 “황천의 해변가에서 너의 아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노래의 힘으로써 복수의 여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너의 아내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그 여자를 이 세상에 데려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며 퇴장한다. 오르페오는 기쁜 마음으로 황천으로 향한다.

제2막 하계의 문 그가 황천에 이르자 불꽃에 싸인 험한 바위가 겹겹이 놓여 있고 영혼들의 춤이 시작된다. 그러나 오르페오의 리라 음악소리에 중단되고, 원한의 영혼 무리는 어두운 땅에서 죽을 자는 누구냐고 묻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애원의 노래를 부른다. 동정을 느낀 복수의 여신과 원한의 영혼들은 오르페오의 사랑 노래에 눈물을 흘리며 ‘승리는 그대의 것’이라 하고, 하계의 문이 열린다. 장이 바뀌어 극락의 벌판에서는 행복한 유령들의 춤이 벌어진다. 오르페오는 극락의 벌판을 찬양하며 그녀를 찾아 노래한다. 유령들은 그에게 “에우리디체는 여기 있다”고 하자 기쁨에 넘쳐 그는 아내를 포옹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상으로 돌아간다.

제3막 어두운 바위산 속 오르페오와 함께 오면서 에우리디체는 남편이 자기 얼굴을 안보는 냉정한 태도에 의심을 갖는다. 오르페오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사랑이 식었다면서 하계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는 에우리디체의 애원에 이기지 못해 마침내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순간 그녀는 쓰러져 버린다. 오르페오는 낙담하여 아리아 “아! 나의 에우리디체를 돌려주소”를 노래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이때 사랑의 신이 나타나 지팡이를 그녀의 몸에 대자 잠에서 깨어난다. 두 사람은 다시 포옹을 하고 지상으로 간다. 오르페오의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노래와 함께 합창이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 막이 서서히 내린다.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제)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원헌 바흐 오케스트라(DG, 1967)
지휘 : 칼 리히터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오르페오),
군들라 야노비츠(에우리디체)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Philips, 1991)
지휘 : 존 엘리엇 가디너
데릭 디 레진(오르페오), 실비아
맥네어(에우리디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EMI, 1981)
지휘 : 리카르도 무티
아그네스 발채(오르페오), 마가렛
마셜(에우리디체)

그녀는 왜 그를 죽여야 했나?

한국영화 속 여주인공, 그 변화와 한계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러 미궁으로 들어가는 영웅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쥐여주며 친부인 미노스를 배신한다. 호동왕자를 위해 자명고를 찢어 조국과 맞바꾼 낙랑공주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의해 행해졌던 신화와 설화 속의 비이성적인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성차별로 고착되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고대 예술작품의 근간은 맹목적인 감성지향에 치우친 여성과 그에 반해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이성적인 남성의 능률한 영웅담이 아니었던가? 남성 혹은 아버지에 의해 유지되어 온 이런 보이지 않는 결계를 무너뜨리고 주체적인 삶을 누리려는 여성은 근세기부터는 냉랭한 성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인형의 집 로라, 안나 까레리나, 자유부인이란 이름으로 화하여 중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강요 받아야만 했다.

소포클레스에 의하면 어머니를 범한 후 천형(天刑)으로 시력을 잃은 테베의 늙은 왕 오이디푸스를 끝까지 보살핀 이는 그의 딸 안티고네였다. 형제간의 싸움으로 사망한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매장시켰던 그녀는 지하감옥에 갇혀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된다. 절대국가 신봉자였던 헤겔은 국법을 떠나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는 안티고네의 여성성을 비판한 바 있지만 그녀의 아버지 오이디푸스조차 권력을 마다하고 정의와 진실을 좇는 그녀가 더 남성적이라고 칭찬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가장의 자리를 승계하려는 불안한 수컷의 서사는 그리스 신화 처음 장면, 어머니 가이아의 사주를 받아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남근을 거세하여 바다에 던진 아들 크로노스에 의해 나타난 바 있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역시 이러한 살부(殺父)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멘토 혹은 아버지라는 절대적 일인자를 죽이는 아들의 이미지는 많은 작품에서 차용되고 있으나, 남근이 결핍된 딸의 경우에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아들로 인정받으려 하며, 어머니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닮음으로써 그의 딸이 되어 그를 승계하려는 욕망을 지닌다.

최근 한국영화에는 아버지를 닮고 물려받는 전통적인 딸의 모습이 아닌 그를 죽여 절대자의 위치를 대체하려는, 오디세이 중에서 네미 신전을 지키는 무소불위 사제를 죽이고 신권을 빼앗는 황금가지 신화에서 기원한 유사남성성의 모습을 담으려는 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 살부의 서사는 **텔미썬딩(1999)**, **백야행(2009)**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를 죽인 여주인공이 점차 살인을 반복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드디어 천만관객 감독의 반열에 오른 최동훈이 **암살(2015)**에서 선택한 여성 페르소나는 하얀 웨딩드레스가 너무도 처연한 전지현이었다. 만주침변으로 어머니를 잃은 독립군 소속 저격수 안옥윤은 조선총독과 친일자본가를 암살하러 경성에 오지만 그녀의 표적인 강인국이 친부였음을 알게 된다. 미츠코와의 조우로 물리적, 심리적 충격을 받지만 딸까지 죽이는 나쁜 아버지에게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전직 ‘살부계 회원’ 하와이 피스톨의 힘을 빌어 공공의 적인 아버지를 처단하며 출생의 비밀과 안전한 삶을 거부하고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연함을 보인다. 저격 당한 안옥윤에게 하와이 피스톨이 “이렇게 친일파 몇 죽인다고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독립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라고 답한다. 개인사를 뒤로 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영웅으로서의 아우라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순간이다.

세령게티 초원의 사자무리를 이끄는 두목 숫사자처럼 **차이나타운(2015)**에서 엄마(김혜수)는 “살모가 있어야 살아 남는다”는 약육강식의 도그마를 통해 유사가족을 통솔해 나간다. 일영(김고은)은 탈여성화를 통해 가족에 필요한 존재로 처절한 생존방식을 터득해 나가던 중, 처음으로 이성으로서의 남자를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엄마의 살인지령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 **지옥의 묵시록(1979)**처럼 엄마는 자신의 최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영의 일격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몸을 내놓게 되는데 그녀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잠시나마 보였던 여성성은 다시 소멸되어 남성 중심적인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반복된다.

고려 말 고난의 시대, 풍천이 주도한 민란은 유백(이병헌)의 배신으로 진압된다. 유백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풍천을 죽인 설랑(전도연)은 이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풍천의 딸 홍이(김고은)는 설랑의 무술지도로 유백에 대한 복수의 칼을 닦는다. **협녀, 칼의 기억(2015)**은 두 사람이 자신의 친 부모임을 알게 된 홍이가 대의와 역사청산을 위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둘을 척살하는 전통적인 무협방식을 재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대정신(Zeitgeist)에 대한 담론을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배우의 연기력과 시나리오의 치밀함은 논외로 하고 말이다.

최근 남자를 초월하여 자신만의 중성적인 여성성을 과시하는 마마무나 제시 같은 연예인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해 ‘걸 크러쉬(Girl crush)’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 여성의 적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유사남성적인 마초로 변해 일갈하는 지도자의 이미지 앞에서 양성평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 직종 앞에 반드시 붙는 여(女)라는 접두사는 이런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공정하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탈(脫)젠더(Gender)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지상목표일 것이다. DNA의 성별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의 DNA 차이보다 더 클까마는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여성’ 영웅이 도래하기에는 이르다고 짐짓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영화평론가 황진미의 <씨네 21>, ‘실현되지 못한 시대정신’에서 상당 부분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불만한 Movie



암살(2015)
감독 : 최동훈
출연 :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차이나타운(2015)
감독 : 한준희
출연 : 김혜수, 김고은



협녀, 칼의 기억(2015)
감독 : 박홍식
출연 :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별이 빛나는 밤, 1889

감각적 환각이 만들어 낸 별빛의 소용돌이

빈센트 반 고흐 & 편두통

편두통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애이다. 진찰이나 검사상 특이한 소견은 없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이 주요 증상으로, 이 통증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전조증상을 동반한 편두통은 이를 경험한 예술가들을 통해 작품 가운데 묘사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작가로는 강렬한 색과 과감한 붓놀림으로 밤 하늘의 굽이치는 별빛을 표현했던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있다.

글.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편두통, 타인은 알지 못할 나만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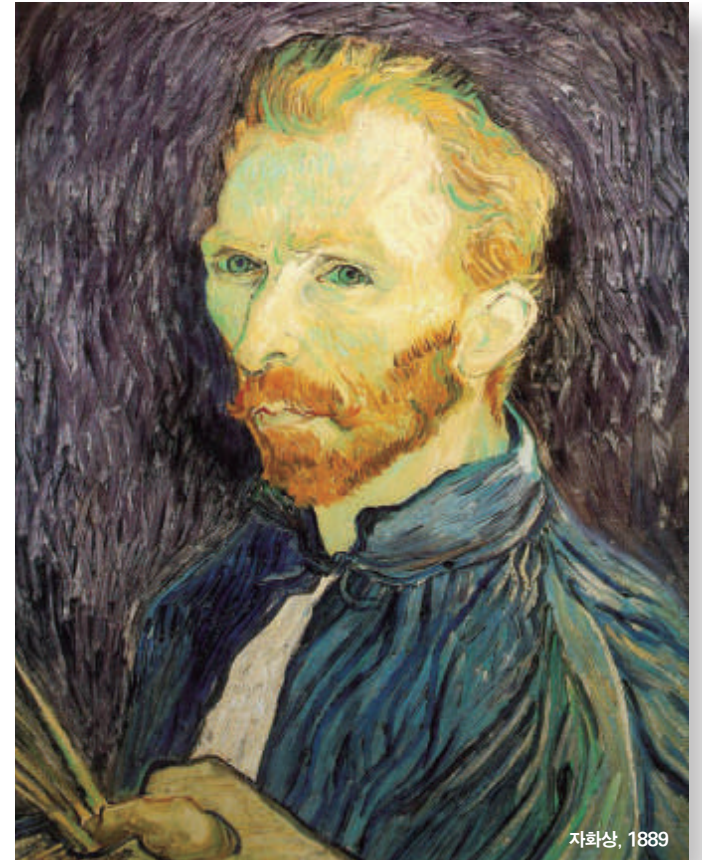
진료실의 문을 열고 찡그린 얼굴의 중학교 여학생이 부모와 함께 들어왔다. 소녀는 1년 이상 머리가 가끔 아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며칠째 계속 아팠다고 한다. 자세히 물어보자 두통이 시작할 때 시야가 흐려지거나 잘 안 보인다고 하며,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눈 앞에 시야를 가리는 불빛 같은 반점이 나타난다고 한다. 두통이 있을 때는 멀미와 같은 구역질이 심하고 누워서 쉬어야 하지만 두통이 없을 때는 잘 지내는 편이다. 이러한 경우 신경학적으로 다른 위험한 요인들이 없다면 전조가 있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다.

편두통은 대뇌나 신체의 다른 기관의 큰 이상이 없으면서 두통 자체가 병인 일차성 두통을 말한다. 대뇌피질의 과민성이 주요원인이고, 혈관 및 신경펩타이드들의 이상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이전에는 남녀의 발생비율이 비슷하나 청소년기 이후에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약 10% 이상이 편두통을 호소한다고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편두통이 간과되는 경우 적절한 활동에 의한 경험습득이 제한되어 성인기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로는 편두통의 시작 시 조짐(전조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조짐이 있는 편두통은 전체 편두통의 20% 이하이나, 뇌전증이나 드물게는 일과성 허혈성 장애와도 감별하여야 하므로 뇌파나 뇌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주로 시각조짐이 많으며 반짝거림(Sparkles, Stars), 암점(Scotoma), 색점(Coloured Spot), 지그재그선 등으로 나타난다. 시각조짐 외에는 팔다리의 저림이나 구음이 상 등이 있는데, 이는 따로 물어보기 전까지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보호자들은 몰랐던 경우가 많다. 조짐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답게 굽이치는 별빛의 비밀

편두통은 이를 경험한 예술가들을 통해 작품 가운데 묘사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편두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흐는 고질적인 편두통과 다른 정신병들의 치료를 위하여 프랑스의 생 레미의 요양원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1889)>을 그리게 된다.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의 정경을 동적인 터치로 묘사한 이 작품은 우주적인 무한함에 대한 상상과 서정성,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며 혼돈과 부조리로 가득한 그의 인생살이를 대변하고 있



자화상, 1889

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는 약간의 불길함을 드리우고 있지만 그 밑에 정적으로 묘사된 마을은 비교적 평온해 보인다.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신경학적인 분석을 해 보자. 이 그림은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들 중의 하나이지만 밤하늘의 배경에서 묘사되는 굽이치는 밤하늘의 모습은 전체적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데(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울렁거릴 수도), 특히 그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우주적인 별빛들은 그가 편두통의 고통 중에서 느꼈던 번쩍거리는 시각조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예술가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 작품들에 걸쳐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던 편두통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작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감추어질 수 있었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의 과정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예술이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승화의 과정이 아닌가? 🧠

* 많은 편두통 관련 사이트에서 환자들과 예술가들의 편두통 관련 작품들(Migraine Art)을 전시하고 있다. 관심이 있다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www.migraine.org.uk/press-media/migraine-art/)



“당신은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흉부외과 정원상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몸의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방치하면 끝내 돌이킬 수 없으리란 것도 알았지만 신승오님은 망설여야 했다. 농흉의 2차 감염으로 시작된 각혈을 보면서도 힘든 형편에 수술비 걱정이 앞서던 그 때,

한양대학교병원 정원상 교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리. 박여민 사진. 강민구



튼튼한 힘이 되어 주신 정원상 교수님께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니 이른 아침부터 혼자 병실을 돌아보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며 건네시던 따뜻한 말씀과 그 마음 덕분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각혈로 동네 병원을 다닌 지 일주일, 참기 힘든 통증이 계속 됐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에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비 걱정에 망설일 때, 정원상 교수님께서 “우선 살고 봅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입원과 함께 진행된 신속한 수술은 제겐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로,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정원상 교수님께서 제 사연을 전달해주신 덕분에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수술기금을 마련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마련이 여의치 않아 수술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제게 희망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그리고 수술비 마련에 힘을 보태주신 한양대학교병원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진 저는 더 이상 입에서 피가 나오지도 않고 아직은 느린 걸음이지만 마음껏 돌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건강해지는 모습만이 저에게 주신 응원과 도움에 손길에 보답하는 것이란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오 드림



신승오님께

신승오님께서 병원을 찾으셨을 땐 각혈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폐가 모두 하얗게 농으로 차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는 농흉으로 인한 피와 고름이 폐와 기관지까지 번져있어 한시라도 빠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가슴에 차있던 피와 고름을 모두 씻어내는 수술에 9시간여가 걸렸습니다. 힘든 수술이었지만 잘 견뎌내고, 많이 좋아지신 신승오님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폐가 자연적으로 다시 늘어나 가슴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애초에 너무 심각해진 상태로 오셔서 인지 줄어든 폐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의 경과는 매우 좋지만, 이대로 방치해두면 다시 가슴에 피와 고름이 차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빈 공간에 다시 농이 차지 않도록 관을 연결해 배액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흉곽성형 수술까지 마무리해야 이후에도 농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로서 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가 신승오님께 드린 것이라곤 저의 작은 마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한양대학교병원이 신승오님께 보내드린 이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앞으로는 스스로 더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차 수술도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정원상 드림

HANYANG NEWS

2015년 9월 ~ 2015년 10월

한양대학교병원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20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헌신으로 성장해 왔다”면서 “정년퇴임이 인생에 커다란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양대학교병원에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해서 1명의 정년퇴임자 모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정년퇴임자] 신경외과 오석전 교수, 심장내과 임한길 교수, 영상외과 홍섭 선임부장, 간호국 김경민 부장, 영상외과 이우식 과장, 시설팀 남인중 계장, 진단검사의학과 한지홍 계장, 치과 조명규 계장, 간호국 박병구 계장, 간호국 육준서 계장, 영양팀 유선희 기능원

‘대장암의 달’ 기념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24일 본관3층 강당에서 '대장암의 달'을 맞이하여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외과 이강홍 교수가 '대장암 환자의 가족관리, 영양팀 엄기숙 영양사가 '대장암 환자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강홍 교수는 “가족력보다 용종이 있는 경우가 대장암 확률이 높으니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를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간호국, 천사데이 행사 개최



본원 간호국은 '천사데이(1004 day)'를 기념하여 지난 10월 7일 본관 1층에서 '간호사와 함께 건강 체계를 나누어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윤영선 간호국장은 “간호국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자 한다”면서 “내원 고객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혈당, 혈압, 건강상담, 고혈압 쿼츠, 페이스페인팅, 연주회 등 다양한 검사와 체험이 진행됐다.

심장내과, 건강토크쇼 진행



본원 심장내과는 지난 10월 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2015년 대한심장학회 심장주간을 맞이해 심장 돌연사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건강 토크쇼를 진행했다. 심장질환에 대한 유익한 건강정보와 참석한 모든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본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가 지난 10월 23일 본관3층 대

강당에서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한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다학제 진료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고도비만을 위한 전문적 진단 및 치료 ▲비만의 초기 진단부터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운동·식이요법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도비만 및 초고도 비만환자의 경우 비만전문수술센터에서 수술을 통해 최상의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맞춤형 비만치료센터는 가정의학과 3명, 소아과 1명, 성형외과 2명, 외과 1명, 소화기내과 1명 등 최소 11명의 전문의를 배치하고, 식이교육시설과 운동치료센터를 갖췄다. 이날 심포지엄은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가 비만의 진단과 의학적 평가,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가 '소아비만',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가 비만의 내시경적 치료, 외과 하태경 교수가 '고도비만 대식 수술', 성형외과 윤진호 교수가 비만 미용 성형, 영양과 백희준 영양사가 비만 영양 상담을 주제로 강좌를 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20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격려사에서 “본원은 항상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람이 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년퇴임자들에게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년퇴임자] 심장내과 김호중 교수, 간호국 박성근 계장

‘미상남애’ 첫돌잔치

본원은 지난 9월 14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미상남애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아이의 첫돌잔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남양주시 주책가 주차장에 버려진 구순구개열 환아 미상남애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



고, 이후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잇몸교정 치료를, 지난 2월에는 성형외과 이장현 교수로부터 입술을 모아주는 1차 수술을, 9월에는 입천장 봉합을 위한 2차 수술과 중이염 수술을 받았다. 의료비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흥농의료지원재단, 말알복지재단 등에서 후원했다.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이야기’ 건강강좌 개최



본원 소아청소년과 김자혜 교수가 지난 9월 18일 남양주시 북부보건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김 교수는 소아시기의 정상적인 키 성장과 성조숙증의 다양한 특징을 소개하여 강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리 코스모스축제서 의료봉사 활동



본원은 지난 10월 10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코스모스축제에서 건강을 주제로 하는 '2015년 시민건강체험마당'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50여 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모

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X-ray 검진, 체지방 분석 등의 여러 검사들을 시행했고, 심폐소생술과 걸음걸이 교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그밖에 교직원 동아리 HY밴드, 오케스트라 요벨팍스, 합기도 사범 등 공연 사이마다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어 체험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발가락 관절통증 올바로 알기’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16일 '발가락 관절통증 올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통풍에 대해서는 류마티스내과 전재범 교수가,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서는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가 각각 강의를 했다. 이번 강좌는 제6회 골드링크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류마티스질환에 대해 올바로 알기 위한 공공캠페인이다.

‘제1회 당뇨발의 날’ 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0월 22일 본관3층 대강당에서 '제1회 당뇨발의 날'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한양의대 박시복 교수의 '당뇨인에 좋은 신발의 조건과 성균관 의대 이동익 교수의 '당뇨발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당뇨발 환자의 경우 발의 압력을 측정해 당뇨화를 맞춰주어 당뇨발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18일 로비에서 '개원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호주 국제병원장은 현황보고에서 “국제병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환자가 가장 선호하는 병원 1위로 꼽히는 등 외국인 진료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진료와 종합검진에 대한 차별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년 개원한 한양대학교국제병원은 지금까지 해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최우수 의료기관 등으로 선정되는 등 외국인 환자 우수 의료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책 발간

오재원 교수, 「꽃가루와 알레르기」 출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최근 「꽃가루와 알레르기」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꽃가루와 알레르기의 상관성

에 대해 기술한 책으로 기후변화 등 많은 환경 변화와 함께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꽃가루 알레르기의 독보적인 전문가인 오재원 교수가 꽃가루 환경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알레르기 식물과 그들의 꽃가루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오재원 교수, 「필 하모니아의 세계 III」 출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필하모니아의 세계」, II에 이은 「필하모니아의 세계

III, 365일 클래식을 듣다를 출간했다. 바이올린을 든 의사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5년 8월 ~ 2015년 9월

가 들려주는 작곡가 102명의 365가지 주옥같은 클래식 음악 이야기로 이전에 소개되지 않았던 오페라와 발레음악까지 폭넓은 사조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수록했다.



안동현 교수,
「ADHD의 통합적 이해」

발간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동현 교수가 대표 저자로 참여한 'ADHD의 통합적 이해'라는 책이 발간됐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ADHD의 개관부터 역사, 치료모형, 진단 및 평가, 신경심리학적 평가, 동반 질병, 2부는 약물치료와 그 부작용, 치료유지, 3부는 비약물치료로서 부모훈련, 부모-자녀상호작용치료, 정신사회적 치료, 학교와 ADHD, 교실지도, 보완대체의학, 4부는 성인기 ADH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 동정



이영호 교수,
중국 제대혈이식
정상 포럼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지난 8월 28일~3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개최된 제3회 제대혈이식 정상 포럼에 초청돼 '제대혈과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용한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정태 교수,
중국 미세수술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가 지난 9월 11일~13일 중국 장사에서 열린 '중국미세수술학회 30주년 기념 및 제11차 미세수술학회' 초청되어 'Perforator Flap versus Conventional Flap', 'New Concept of Head & Neck Reconstruction'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승현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지난 10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창범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
앱 네이밍 공모 당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지난 9월 25일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위원회에서 개발

한 앱 네이밍 공모전에서 '당밥'이란 명칭으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당밥'은 규칙적으로 밥상을 차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형중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가 지난 10월 6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이현재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은 '서울지역에서의 기후와 대기오염의 계절별, 월별 변화요인에 따른 뇌졸중의 발생빈도이다.



각 분야의 다학제적인 접근법으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오픈한 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 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11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news.hyumc.com/?p=14469>

09+10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김** soon0193053***@hanmail.net
여** yar0***@naver.com
이** tokh***@hyumc.com
장** sunp***@me.com
정** shlv7***@hanyang.ac.kr
이** wishw***@naver.com
박** bleu1***@hyumc.com
김** ssse***@hyumc.com
이** ra***@hanmail.net
서** exof***@gmail.com



한양대학교병원 최증섭 신부인과 교수 KBSR [라디오주치의]/ 8월 2일/ 지궁 내막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예방법/ **황경균 치과 교수** SBSR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8월 3일/ 턱관절장애/ **노영석 피부과 교수** KBSR [라디오주치의]/ 8월 3일/ 손습진/ **윤진호 성형외과 교수** SBSR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8월 10일/ 하안검성형술, 8월 17일/ 얼굴 주름개선 치료/ **김정은 피부과 교수** KBS2TV [생생정보]/ 8월 18일/ 여름피부를 사수하라! 동안 피부 만드는 비법/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아침]/ 8월 19일/ 달가만 해도 발전과 마비가, 우리집에 숨어 있는 독은?/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합뉴스TV [명품리포트 맥]/ 8월 23일/ 한진N 가짜인가, 상술인가... 제대혈의 진실은?/ **황규태 정형외과 교수** SBSR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8월 24일/ 골다공증을 동반한 골절, 9월 7일/ 골수염/ **박진규 심장내과 교수** SBSR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8월 31일/ 부정맥/ 9월 14일/ 실신과 돌연사/ **김영서 신경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9월 7일/ 씹으면 좋아져요/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R [라디오주치의]/ 9월 7일/ 조영제 부작용과 주의점/ 9월 30일/ 기관지 확장증 **오재훈 응급의학과 교수** KBS1TV [재난안전인



사이드]/ 9월 13일/ 벌초, 성묘철 안전사고 주의보/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YTN 사이언스 [헬스라이프]/ 9월 17일/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고주연 피부과 교수** KBS2TV [비타민]/ 9월 24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KBS2TV [비타민]/ 9월 24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KBS2TV [비타민]/ 9월 24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이승훈 영상의학과 교수** KBS2TV [비타민]/ 9월 24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R [라디오주치의]/ 9월 25일/ 간의 특성과 간 건강 상식/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8시 뉴스]/ 9월 29일/ 갑자기 냄새 못 맡고 맛을 잘 못 본다면 치매 의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BS [8시 뉴스]/ 9월 15일/ 알레르기 부르는 한삼덩굴/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MBC [기분 좋은날]/ 9월 17일/ 만성통증/ **고성호 신경과 교수** KBS2TV [비타민]/ 9월 24일 /600회 특집 의사의 건강법 <백의사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R [라디오주치의]/ 8월 18일/ 류마티스관절염



한양대학교병원 안동현 신경정신과 교수 서울신문/ 8월 5일/ 우리 애도 성추행 몇 번 당했다는데... 선생 어떻게 만나/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헤럴드경제/ 8월 12일/ '제대혈 논란'에 의로계 "가족제대혈 보관가치 있다", 헬스조선/ 8월 26일/ "치료에 도움 안된다" vs "미래 건강 위한 투자"... 보관료 100만~400만원 제대혈 효과 논란/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8월 13일/ C형간염, 이전 먹는 약으로 치료한다, 국민일보/ 9월 7일/ "간편하게 알약 복용"... C형간염 치료제 새 패러다임 여나, 경향신문/ 9월 22일/ 먹는 C형간염치료제 시대 '활짝' 환자 고통은 ↓ 완치율은 ↑/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8월 26일/ 차별한데 집중력 부족한 아이, 혹시 '조용한 ADHD'?!/ **김동선 내분비내과 교수** 국민일보/ 9월 7일/ [건강 나침반] 당뇨병 이기려면 약 공포부터 이겨라/ **송인석 안과 교수** 중앙일보/ 9월 9일/ [통계로 본 가을 질환] 알레

르기성 비염 3년간 10만 명 증가... "원인은 열대화"/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중앙일보/ 9월 9일/ [통계로 본 가을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3년간 10만 명 증가... "원인은 열대화"/ **손장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헬스조선/ 9월 23일/ 흡연 안 하는데 8주 이상 미루기참하면 '가침형 천식' 의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경향신문/ 9월 4일/ 한양대구리병원 오재원 교수, '꽃가루와 알레르기' 출간/ 국민일보/ 9월 17일/ [신간] '필하모니아의 사계 II', 현직 의사가 쓴 클래식 안내서/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9월 9일/ 타고난 면역 체질 바꾸기 어렵고, 비염 유발 물질 완벽히 못 없애/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경향신문/ 9월 17일/ 스마트폰 15도 위를 보듯 사용해야 목 통증 예방/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국일보/ 9월 20일/ 이른둥이 출산 늘어나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하면 지원 '독'/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김태환 류마티스내과 교수** 헬스조선/8월 26일/ 아침마다 허리·엉덩이 통증 있으면 의심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 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억 원]



김응서 · 정옥순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5년 8월~2015년 9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500만 원 이상		김경화	본관11층	김학선	국제행정지원팀	성민철	안과	이정한	산부인과	차경옥	간호국
애정희		김고은	노동조합	김희숙	약제팀	성정순	간호국 사무실	이제인	약제팀	채선자	임상연구지원팀
		김근호	신장내과	김휘규	시설팀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종	교육연구팀	채영림	재무팀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근욱	본관7층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손한숙	약제팀	이종숙	진단검사의학과	최근배	핵의학과
강정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남기	재무팀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송혜기	간호국 9층병동	이종숙	보험심사팀	최도전	본관 8층
김호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대성	백남심장센터	노영식	피부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종희	본관5층	최미경	간호국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노정환	병리과	신용운	안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민영	외과
박종민	젤피부과의원	김대회	원무팀	류제일	신경외과	신우종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환	영상의학과	최성일	심장내과
박충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동훈	원무팀	문지웅	호흡기내과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최승식	성형외과
유준호	다솜내과	김명숙	간호국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철범	흉부외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미혜	간호국 내과계중환자실	문혜숙	간호국 인공신장실	신희숙	간호국 19층병동	이충기	교육연구부	최준석	타이비인후과의원
이선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만규	외과	문홍상	비뇨기과	심경아	간호국 11층병동	이향락	소화기센터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김민선	영상팀	박기철	정형외과	심재향	마취통증의학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충혁	정형외과
		김범석	아침아비인후과소아과	박동우	영상의학과	양정자	원무팀	이화준	Q팀	최혁중	응급의학과
		김봉건	방사선종양학과	박미라	간호국 병동팀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최호진	신경과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봉규	원무팀	박성욱	건강관리팀	염중훈	마취통증의학과	임상혁	영상의학과	최홍용	비뇨기과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신기	영상의학과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임완예	원목실	표주연	병리과
김기찬	김기찬내과	김수연	영상의학과	박예수	정형외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임천식	직업환경의학과	허루미	수술실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승국	영상의학과 MRI실	박용미	본관9층	오재혁	진단검사의학과	임한웅	안과	한동수	소화기내과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승현	신경과	박웅수	내분비대사내과	우춘미	보험심사팀	장성호	재활의학과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김양욱	신생아중환자실	박웅천	정신건강의학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일현	재무팀	한상웅	신장내과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보	물류팀	박원희	치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재선	인공신장실	한정희	참조은아비인후과
태임내과의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은재	약제부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장지희	고객지원 팀	함두식	기획팀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영환	핵의학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전미선	간호국	홍경표	인사총무팀
		김옥중	물류팀	박재우	고객지원팀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전석분	중앙 공급실	홍상모	내분비대사내과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정하	간호국 17층병동	유호선	영상의학과	전선희	간호국 외과계중환자실	홍섭	영상의학과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김우길	시설팀	박종국	영상의학과	윤성익	재활의학과	전용철	내과	홍성권	고객지원팀
김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운웅	기획팀	박종주	간호국 7층병동	윤여필	물류팀(의공)	전우재	마취 통증의학과	홍은아	인사총무팀
강민호	안과	김운영	치과	박주원	의무기록팀	윤영선	간호국	전현호	물류팀	홍의호	핵의학과
강보승	응급의학과	김은철	원무팀	박지호	내과중환자실	윤인숙	간호국 본관20층병동	정경희	본관 6층	황세진	해부학교실
강신화	간호국(수술실)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진웅	시설팀	윤정화	의무기록팀	정미선	원무팀	황윤신	병리과
강영의	간호국 본관6층	김정수	피부과	박찬남	종합검진센터	윤호주	호흡기내과	정수경	간호국	황의순	고객지원팀
강오열	고객지원팀	김정숙	간호국 수술실	박찬혁	소화기내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정재호	아비인후과	황인남	의료정보팀
강춘희	보험심사팀	김중현	정형외과	박창규	시설팀(시설)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진혁	아비인후과	황인자	간호국
고란주	간호국 10층	김준희	본관10층병동	박태수	정형외과	이경희	간호국 동관7층	정진환	신경외과		
고성호	신경과	김지숙	병리과	박환철	심장내과	이광현	정형외과	정찬호	대외홍보팀	10만 원 미만	
고아라	산부인과	김지은	감염내과	박환겸	외과	이도희	Q실	정태순	간호국 11층병동	강다운	본관9층
고재성	고아비인후과의원	김지현	약제부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이민자	신경과	정희숙	보험심사팀	강문주	본관11층
공상훈	경영감사팀	김진녀	본관8층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강민서	본관6층
곽인영	곽아비인후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배상철	간호국 16층병동	이숙희	간호국 16층병동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곽혜영	약제부	김창선	응급의학과	백근만	운영지원과	이순우	회복실	조성하	물류팀	강성범	핵의학과
곽희숙	간호국 7층병동	김충현	신경외과	백두진	해부학교실	이슬아	간호국 11층병동	조아라	영양팀	강성찬	외과
구선완	인사총무팀	김태형	호흡기내과	백은정	진단검사의학과	이승환	아비인후과	조영완	인사총무팀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국은영	간호국 15층병동	김태준	호흡기내과	백초숙	간호국 18층병동	이양섭	원무팀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강신창	핵의학과
권순찬	직업환경의학과	김한준	외과	백희준	영양팀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현주	의무기록팀	강원위	수술실
권오근	노무팀	김현욱	의료정보팀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장현	성형외과	조화윤	안과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경현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주	고객지원팀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정민	물류팀(의공)	주임선	시설팀	강은미	본관10층
		김혜원	간호국 외래간호팀	성명순	사회복지팀	이정일	정형외과	지용배	아비인후과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강지연	본관6층	김민정	신생아중환자실	김정아	본관6층	민진	신생아 중환자실	서명진	주사실	양명화	간호국
강지원	기획팀	김민희	국제병원행정지원팀	김정안	본관7층	민현숙	약제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양미영	영양팀
강지혜	본관5층	김민희	2층내과	김정언	본관7층	박경림	보험심사팀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양수웅	수술실
강해영	응급의료센터	김백수	본관7층	김정은	본관11층	박경미	비뇨기과	서승희	본관9층	양은주	신생아중환자실
강해숙	영양팀	김병숙	원무팀	김정희	영양팀	박경아	제3중환자실	서영남	본관8층	양현	간호국 교육팀
고주완	본관9층	김보미	신경외과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박경진	본관7층	서영은	본관5층	양효선	약제팀
고희경	본관10층	김봄	본관11층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경희	중앙공급실	서우용	진단검사의학과	엄기숙	영양팀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상미	본관10층	김중식	수술실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현주	정형외과	엄평화	본관6층
공지현	심장센터	김상훈	약제과	김지윤	본관11층	박기정	내시경실	서호진	외과	엄혜정	수술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상희	응급의료센터	김창금	영양팀	박명경	외과	서효림	약제팀	여미진	본관10층
권난희	영양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철한	재무팀	박명호	환자이송반	설명길	의료정보팀	여은주	본관6층
권도희	제3중환자실	김신영	고객지원팀	김초롬	본관5층	박미숙	영양팀	성경희	본관7층	여은주	간호국 20층병동
권미하	2층내과	김신영	영상의학과	김초롬	본관6층	박미소	임상연구지원팀	성외순	국제행정지원팀	오금복	정형외과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김신주	간호국 인공신장실	김춘애	영양팀	박미옥	교육연구팀	성혜윤	본관8층	오기향	중앙공급실
권선미	본관6층	김선화	간호국	김태근	병리과	박상혁	영양팀	손영성	본관9층	오미란	본관7층
권순주	본관16층		심뇌혈관집중치료실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손화선	대외홍보팀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권언희	영양팀	김성애	간호국 17층병동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선영	고객지원팀	송명진	영상의학과	오연이	영양과
권은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성철	병리과	김철언	응급의료센터	박선현	피부과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오영진	고객지원팀
권은진	치과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철일	외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송주영	2층내과	오유선	본관10층
권혁천	비상계획계	김세정	본관11층	김현주	본관6층	박선찬	진단검사의학과	송현수	시설팀(시설)	오은주	본관6층
권현숙	본관5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현주	본관9층	박소은	영양팀	송현주	간호국 15층병동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소연	서울 본관10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수미	안과	송화언	본관11층	오정님	영양팀
금나래	본관9층	김소연	구리 본관10층	김현창	물류팀	박수정	수술실	송훈남	재활의학과	오정숙	본관10층
김경수	소화기내과	김소연	본관7층	김현희	2층내과	박순구	안과	신명희	치과	오지현	주사실
김경숙	항암제조제실	김소영	본관7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연희	수술실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오진영	2층내과
김경실	본관5층	김소윤	외과	김형석	약제팀	박예진	본관8층	신수경	간호국 8층병동	오창임	내과중환자실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수미	내과중환자실	김형주	약제팀	박용범	원무팀	신수지	수술실	오홍석	진료부
김경인	응급의학과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혜리	간호국 17층병동	박유정	본관5층	신우경	본관9층	오호현	수술실
김경중	한양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김수현	영상의학과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운성	본관10층	신재철	의무기록팀	오호순	응급의료센터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효준	인사총무팀	박은영	인공신장실	신정미	영양팀	옥상열	원무팀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아름	본관5층	김휘원	본관5층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우순희	수술실
김금례	간호국 인공신장실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화나	간호국 주사실	박용범	비상계획계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우정미	고객지원팀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양석	김포에사랑병원	나소정	수술실	박점현	본관11층	신현주	인공신장실	원혜정	부속실
김기석	간호국 내시경실	김양선	간호국 인공신장실	나윤숙	2층 내과	박정은	본관5층	신혜민	수술실	원홍석	인사총무팀
김나영	간호국 18층병동	김연정	재무팀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주은	본관8층	심규진	본관7층	위영현	약제팀
김남희	본관11층	김연주	2층내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심규형	영상의학과	유고은	본관10층
김다솜	약제팀	김영미	이비인후과	남궁정민	간호국 16층병동	박지애	Q팀	심요라	보험심사팀	유미화	물류팀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영선	본관5층	남순영	본관5층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심유진	본관5층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김도와	내시경실	김영선	치과	남희은	본관8층	박지혜	본관11층	심울수	영상의학과	유신길	건강검진센터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연	외과	노광규	고객지원팀	박진옥	피부과	안대웅	교육연구부	유선정	이비인후과
김두리	수술실	김영일	고객지원팀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진희	항암제조제실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유숙	병리과
김란	본관5층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노옥석	본관7층	박춘아	수술실	안명현	병리과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김령	영양팀	김영훈	물류팀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현정	외과계중환자실	안미경	영양팀	유은희	2층내과
김령희	부속실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류중백	시설팀(시설)	박현태	본관8층	안삼순	2층내과	유정안	중앙공급실
김명환	영양팀			류현숙	마취통증의학과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석태	영상의학과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육원	영상의학과	명시현	내시경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유주랑	본관5층
김미라	성형외과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모지은	소화기내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안영선	본관5층	유지학	원무팀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유정	2층내과	유현영	물류팀
김미섭	영상의학과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문미영	본관8층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은중	의료정보팀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지	본관10층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방지훈	신경외과	안은진	내과중환자실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김미성	간호국 사무실	김은희	수술실	문솔기	간호국 분만실	배소석	수술실	안이슬	본관10층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인호	약제팀	문영민	영상의학과	배영주	간호국 10층병동	안정미	수술실	윤관식	영상의학과
김미하	보험심사팀	김지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문재봉	시설팀(시설)	배은희	본관11층	안정은	본관11층	윤규리	본관10층
김미희	간호국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정희	본관9층	백필선	외과	안정현	이비인후과	윤명희	재활의학과
김미희	본관7층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한솔	본관 8층	백형정	약제팀	안창선	물류팀	윤미영	간호국 인공신장실
김민아	본관10층	김정례	간호국 11층병동	문희애	본관6층	백혜연	수술실	안혜옥	간호국 본관20층	윤미인	본관6층
김민정	수술실	김정민	본관10층	민세인	본관 11층	변다솜	본관10층	양광식	의료정보팀	윤선미	영양팀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정숙	고객지원팀	민소영	본관9층	변순현	의무기록팀	양길녀	외과	윤선애	본관6층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윤선희	영양팀	이연주	정형외과	장윤주	약제팀	최문정	본관5층	홍숙의	병동서무
윤아름	본관10층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장정아	간호국 인공신장실	최미옥	치과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윤원경	간호국11층병동	이영주	2층내과	전경신	성형외과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홍은자	간호국 내시경실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예린	이비인후과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서화	본관8층	황미향	영상의학과
윤정아	외과	이우식	영상의학과	전효선	수술실	최선경	재활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윤정희	약제팀	이유리	제3중환자실	정경은	본관5층	최선미	간호국 인공신장실	황성희	본관11층
윤지선	본관6층	이윤미	심장센터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황영순	본관5층
윤형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윤진	본관10층	정대천	고객 지원팀	최성은	교육연구팀	황의경	영상의학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선주	이비인후과	최세연	원무팀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은명	약제팀	정선태	진단검사의학과	최소담	영상의학과	황주희	본관6층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은애	본관11층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순애	간호국 인공신장실	황준상	영상의학과
음희재	간호국 내시경실	이은영	신장내과	정수정	본관5층	최승희	본관10층	황준호	의료정보팀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애용	심장센터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혜연	본관10층
이강연	원무팀	이은형	본관6층	정옥숙	약제부	최연화	본관5층	황해순	시설팀(통신)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이은희	본관5층	정유진	간호국 17층병동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희수	영상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희	간호국 인공신장실	정은아	치과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이경주	본관9층	이재민	마취통증의학과	정은영	수술실	최은영	본관8층		
이경철	기획팀	이정애	보험심사팀	정은재	약제팀	최재범	기획팀		
이경화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에	병리과	정의숙	본관8층	최정연	대외홍보팀		
이경희	본관11층	이정은	시설팀(통신)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정훈	안과		
이경희	간호국 인공신장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임증	응급의료센터	최종석	영상의학과		
이관석	인사총무팀	이정화	의무기록팀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종은	보험심사팀		
이규택	신경과	이정화	신경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진실	본관5층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창순	간호국		
이나리	본관10층	이정희	내과중환자실	정지호	본관6층	최현구	이식센터		
이나영	수술실	이종열	치과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이도영	본관5층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혜웅	고객지원팀		
이도현	수술실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혜영	본관7층	최희숙	간호국 11층병동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주현	본관6층	정훈	의료정보팀	최희영	Q팀		
이두종	핵의학과	이지현	심장센터	조기나	외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이명숙	병리과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경숙	간호국 인공신장실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이명주	약제팀	이하람	마취후회복관리실	조광희	심장센터	하은영	약제팀		
이미경	영양팀	이현아	본관7층	조구성	영상의학과	하주현	간호국 15층병동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현영	본관11층	조규선	영상의학과	하지윤	원무팀		
이미란	본관6층	이현주	인공신장실	조문형	원무팀	한상운	원무팀		
이미자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용희	이비인후과	한소담	본관10층		
이미정	본관10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은영	영상의학과	한수진	본관10층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혜정	수술실	조은익	진단검사의학과	한승희	수술실		
이민지	본관5층	이호남	고객지원팀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한이영	본관6층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지희	본관7층	한주화	심장센터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호용	영상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한지홍	진단검사의학과		
이상찬	인사총무팀	임경순	신경외과	조현남	간호국 15층병동	한현남	영양과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임다현	본관10층	조현일	시설팀(시설)	한현수	의료정보팀		
이새롬	본관11층	임미란	본관10층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현정	정형외과		
이서윤	본관9층	임선경	본관11층	주찬미	본관7층	함명자	보험심사팀		
이선영	본관6층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이선화	본관9층	임은실	산부인과	지은아	산부인과	함연순	외과		
이선희	고객지원팀	임은자	이비인후과	지현정	본관7층	허성미	외과		
이성모	물류팀	임은주	신경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허유비	본관7층		
이성미	신경외과	임인자	수술실	진수희	응급의료센터	허정현	심장센터		
이소연	신경과	임인현	병동서무	진춘희	영양팀	허지선	본관7층		
이수연	시설팀(통신)	임정연	시설팀(통신)	천경희	의료정보팀	허지영	2층내과		
이수진	수술실	임주아	정형외과	천다혜	간호국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이숙	고객지원팀	임지상	영양팀	천영복	물류팀(의공)	허효숙	소화기내과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지영	영양팀	천은선	외과	현순희	본관10층		
이순자	본관5층	임화영	비뇨기과	최고운	본관11층	홍대영	인사총무팀		
이승호	영상의학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홍민영	비뇨기과		
이연우	본관6층	장영주	본관6층	최다울	신생아중환자실	홍성숙	내시경실		

가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Hanyang
Calendar

11
November

11.3 TUE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 에벤에센 중창단
오후 12시 20분
본관 1층 로비

11.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건강한 뇌혈관으로 풍을 예방하자
- 신경외과 정진환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1층

11.2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비엔나국립대학 안명진
바이올리니스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28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재활 운동
- 김태곤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2
December

12.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요
-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1층

12.11 FRI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강직성척추염 바로 알기
힐링 토크
- 김태훈, 최찬범, 이규훈 교수
오후 1시 30분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대강당

12.19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 환우 송년회
- 김승현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월 화 수 금	월	간질환
	최호순	수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루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루내시경
이강녕	전대원	월 화 목토(4주)	수 금	간질환
	이항락	금 토(2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식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루내시경
	김영택	수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강원	월 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곽주희	금	화, 목,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동휘	목, 토	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출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임영효	수, 금	수 월,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박진규	월 화, 목, 토(주)	목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강종명	월 화, 수, 금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김근호	월 금, 토(3주)	월, 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내분비내사 내과 2290-8300	이창화	수, 목, 토(2주)	월,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박준성	화, 목, 토(3주)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은영	화, 목, 토(3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안유현	월 화 수 목, 토(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최응환	월 화 수 금, 토(주)	월 화, 금	당뇨병(금·초진만), 뇌하수체, 갑상선
	김동선	월 수, 목, 토(3주)	월 화, 금	일반 내분비내과 질환
	박정환	화, 토(4주)	수, 목,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신동호	화, 목	화,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윤호주	월 수	수, 목	폐암, 폐결핵, 폐렴, 폐암
	손장원	월 화, 목, 토(3주)	금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김상현	화 목 금 토(4주)	월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박동원	수, 토(2주)	화, 수,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대강당	이지영	금	월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간질질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김남수	월 수, 토(2주)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 금▲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화 수 토(주)	수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토(4주)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2290-8871	이현주	월 수, 목, 금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지혜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박현경	월 수, 목, 금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목(구리)▲목	월·목(구리)▲목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희진	해 외	월, 목, 금	연 수
	김영서	화, 토(13주)	월, 목, 금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13주)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피부과 2290-8434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동훈	월, 목, 토(3주)	월, 목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조성진	목	화, 수	소아정신의학
외과 2290-8444	이동준	월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목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간선
	고주연	화, 금, 토(2,4주)	수, 목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
	김정은	월 수, 토(3주)	화, 금	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소아외과	김정은	월 수, 토(3주)	화,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간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목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소아외과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수,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모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월 화	목	복강경/로봇수술 비대사수술, 복강경장수술
소아외과	안병규	월, 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복강경장수술
	이주희	토(4주)	월, 금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최승혁		수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내과
	최승혁		수	일반 외과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신장수술, 탈장수술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금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혜선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 수술)
	김태승	토	월, 목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이광현	월, 수, 금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종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각,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목	화, 목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황규태	화, 금	금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목, 토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각,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진규	목, 토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각,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진규	목, 토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각,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560－2114 ■ 응급실 : 031－560－2050 ■ 전화예약 : 1577－9382 ■ 진료의뢰센터 : 031－560－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크스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이형중	월 수 목, 토(1주)	금 화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3,4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자림증 (목디스크, 손목증후군),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한영훈 정재우	토(3,4주)	금 목	일반 신경외과 질환 일반 신경외과 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상형, 선택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매주)	화, 금 화, 목	미용성형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알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화, 수, 목, 금	월, 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목, 토(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목 오전: 여성임재진)
	이원무	화,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수 오전: 로봇클리닉)
안과 2290－8570	엄기방 이병로 송인석 임한웅 이주향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3주) 금 토(2,4주)	금 목 월, 화,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형, 눈물샘, 미숙이망막, 사시,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토(3주) 목, 토(2주)	화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인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목, 토(4주)	월, 목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월, 금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비뇨기과 2290－8593	이준중	수	수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재활의학과 2290－9350	박해영 김용태 박성원 이호원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해 외 월, 목, 토(3주)	월 수, 금 금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인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김태곤	화, 목, 토(1주) 월▲	화, 목(3주), 금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해진	월~금 월~금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김지영	토(1,3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 금 월, 화, 목 월, 화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한지영 임재중 김태건 전재운	월, 수, 목 월~금 월~금 월, 화, 수, 금 금	월, 수 월, 화, 금 월, 화, 목 월, 화, 수, 금 목, 금	턱알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턱알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심광섭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용주 하태경	월, 화, 금 월 수 목 화, 금	수 금 월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월 화, 수	스포츠의학 간강중진의학, 노인의학 간강중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월, 화, 목, 토(2주) 월, 수, 목, 토(4주) 화, 수, 금, 토(2주) 화, 목, 토(2주) 월, 화, 수, 금, 토(4주)	화, 수 월, 목 목, 금 월, 화, 목 수, 금	류마티스·골관절염, 성인형소혈병, 근염 류마티스·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이진규	목 화		전 주관절, 화전관개입술,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슬관절클리닉, 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수 월, 목 목,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스포츠의학 간강중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배현주 김정태 김연환	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 2015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간질환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한동수	월, 목	화	
	전용철	월, 금	수	
	은창수	수, 금	월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박찬혁	목, 토(1,3주)	수, 금	
	정재운	수, 목	화, 금	
	송준석		목	
	최원석		화	
	김원중		월	
심장내과 560-2220	김소길	월, 화, 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최성일	목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토(2,4주)	월, 화, 목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한상웅	월, 화,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이주학	수, 목, 토(2,3주)	월, 목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이은영	토(4주)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560-2220	박용수	월, 금, 토(3,4주)	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이창범	수, 목, 토(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홍상모	월, 화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월, 수, 목, 토(1,3주)	화, 수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문지용	화, 목, 금, 토(2,4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액종양내과 560-2220	최정혜	화, 목, 토(1,4주)	월, 수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원영웅	월, 수, 금, 토(2,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화, 목, 토(4주)	월, 목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신경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지혜	수, 토(3주)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최영진	월, 목, 토(2주)	화, 목, 금	소아호흡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증, 하지불안증후군, 손떨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월, 화, 목, 토	목	치매, 뇌졸중, 두통
	오경필	화, 수, 금	금	일반 신경과 질환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월, 화, 목, 토(3주)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토(1,3주)	수	PTSD,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신경영상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월, 금, 토(1주)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3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류제일 김현우	정진환	월, 토(4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2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월, 목	월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노선균	화	화, 수, 목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남승혁	수, 금	금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 수, 금 화, 목 수, 금, 토(3주) 목, 토(1주)	수 월, 목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련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이정일	화, 토(4주) 월, 토(2주)	목, 금 화,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고이란	수 월, 목, 금 화	월, 수 목 화, 금	복강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모,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부인종양 복강경 수술, 부인종양, 부인암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장정우	월, 금 화, 목, 토 수	수, 금 화, 목, 토 화, 금 월, 목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진료 일반 성형외과진료
외과 560－2290	남영수 박환겸 김한준 김민규 최만영 윤정아 김현일	월, 수 목 화, 금, 토(1주) 화, 토(2주) 금, 토(3주) 목, 토(4주)	목 화 목 수, 금 월, 화 월, 수, 금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병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안과 560－2350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신용운	수, 금 월, 토(1,3주) 수, 토(1,3주) 월, 금, 토(2,4주)	월, 수 화, 금 화, 목,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이정우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월, 수 화	목 화, 금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정재호 조용희	월, 수, 토(4주) 목, 금, 토(2주) 화, 금, 토(3주)	수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 이비인후과
	유한석	토(1주)	월, 화, 목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 목 수, 토(3주)	목 월,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김규식	월, 금, 토(1주) 토(4주)	화 화, 금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560－2380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조형필	월, 금 화, 목	월, 수 화, 금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두통, 어깨통증 만성통증(목, 허리, 어깨, 무릎) 및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재활, 척수손상, 재활, 스포츠 의학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심재향	화, 금, 토(1,4주) 월, 수, 금	월, 화, 목, 금 월,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통증클리닉 560－2095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 2015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주년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 동북부의 의료 중심지

신관 신축과 함께 또 한 번 도약합니다



1995년 10월 개원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9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료서비스 영역 '전 부분 우수' 병원,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대 암수술(간암, 위암, 대장암) 사망률 평가 1등급 등,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 동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의료를 담당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지어지는 신관과 함께 더 큰 의료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